

요약 및 정책건의

I. 연구의 개요

-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 -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, 앞으로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.
 - 우리나라의 원유수입량은 세계 4위로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950억 달러 정도가 되나, 올해는 지난해보다 40% 급증한 1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에너지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음.
 - 201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로 지정될 예정임.
 - 서울시는 이미 2007년에 친환경에너지 선언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15%, 온실가스배출 25%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, 향후의 고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과감한 화석에너지 감축전략이 불가피함.
- 서울시는 현재의 고유가 위기를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- 런던과 도쿄 등 우리의 경쟁도시들은 이미 과감한 CO2 감축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.
 - 서울시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건물과 수송부문에 전체 소비량의 85%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 에너지전략은 이 두 부문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.

II. 정책건의

- 우선 화석에너지 50%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, 에너지효율 증대, 대체 에너지 활용 등 세가지 방향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함.
 - 건물부문에서는 탄소 마일리지제 도입, 패시브하우스 보급, 아파트단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총량제 시행 등의 조치가 필요함.
 - 수송부문에서는 승용차 통행공간의 그린모드로의 전환을 통해, 승용차 통행공간을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연결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함.
 -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한강 등 하천수와 하수열을 활용한 냉난방,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가로등 설치 등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선도 사업을 진행함.
- 서울시의 에너지대책이 선언적 차원에서 벗어나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구와 투자재원 마련이 필수적임.
 -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50%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.
 - 소요재원은 우선 서울시 세출예산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·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을 통해 5조 원을 확보하고, 잔여 소요재원 12조 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
 - 아울러 에너지전략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를 시장직속 기구로 하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, 경영기획실과 감사관실 등까지 포함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획-집행-평가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.
 - 에너지사업의 실무적 집행기관으로는 (가칭)서울특별시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.